<h1>나 혼자만 레벨업-8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eb849b00b3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화</p>  
<p>구석에서 들리는 굵은 목소리에 진우는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."</p>  
<p>"저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말이지요."</p>  
<p>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침대 주위로 다가왔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물었다.</p>  
<p>"누구...시죠?"</p>  
<p>전혀 기억에 없는 얼굴들이었다.</p>  
<p>군인처럼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이 명함을 건넸다.</p>  
<p>"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명함을 받아 들었다.</p>  
<p>'한국헌터협회 감시과 과장 우진철?'</p>  
<p>감시과는 헌터협회에서 유일하게 강한 헌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서였다.</p>  
<p>헌터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니 당연히 수준급 헌터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"감시과에서 저를 왜?"</p>  
<p>우진철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와 앉았다.</p>  
<p>부하 직원인 듯 보이는 남자는 그 뒤에 섰다.</p>  
<p>체격이 좋은 두 남자가 옆에 바싹 붙어 있으니 그 압박감이 대단했다.</p>  
<p>그들이 전해 주는 이야기는 놀라웠다.</p>  
<p>"제가 사흘이나 잠들어 있었다고요?"</p>  
<p>"혹시 의식을 잃기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?"</p>  
<p>"예."</p>  
<p>"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지요."</p>  
<p>진우는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영문 모를 환청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.</p>  
<p>"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... 그게 답니까?"</p>  
<p>"네, 눈을 떠보니 여기더군요."</p>  
<p>우진철과 부하 직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.</p>  
<p>당사자인 진우가 아는 게 없으니 곤란한 눈치였다.</p>  
<p>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이 진우였다.</p>  
<p>"제가 어떻게 여기 잇는 겁니까? 대형 길드가 놈들을 제거한 건가요?"</p>  
<p>"그게 실은..."</p>  
<p>난처해하던 우진철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생존자들의 신고를 받고서 감시과 직원들과 함께 '백호' 길드가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."</p>  
<p>백호 길드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길드였다.</p>  
<p>백호 길드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협회도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뜻이다.</p>  
<p>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</p>  
<p>진우는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이미...?"</p>  
<p>"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. 그 방 안에는 의식이 없는 성진우 헌터님만 쓰러져 있었을 뿐, 신상이나 석상들의 흔적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"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. 생존자들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,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었다면 다른 가능성을 의심해 봤겠지요."</p>  
<p>우진철은 턱을 긁적거렸다.</p>  
<p>A급 랭크를 받고 감시과에서 일한지 6년.</p>  
<p>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도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다.</p>  
<p>다른 길드나 타국의 기관에 자문을 구해 보기도 했지만 여타할 소득은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.</p>  
<p>"저희 생각입니다만..."</p>  
<p>우진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</p>  
<p>"그곳엔 분명히 뭔가 강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들은 누군가들, 혹은 누군가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. 게이트가 닫히기 전까지 그 게이트에서는 빠져나온 이계의 존재는 없었으니까요."</p>  
<p>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.</p>  
<p>극히 희박한 확률이라도 전부 고려해야 했다.</p>  
<p>협회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,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정이 나왔다.</p>  
<p>우진철이 진우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저희는... 성진우 헌터님의 각성 후 각성을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."</p>  
<p>각성 후 각성!</p>  
<p>진우가 눈을 크게 떴다.</p>  
<p>매우 드문 일이지만 헌터로 각성한 존재가 다시 각성하는 경우가 있다.</p>  
<p>흔히들 '재각성'이라고도 부르는 각성 후 각성.</p>  
<p>이 과정을 겪은 헌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게 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</p>  
<p>원래 한 번 정해진 헌터의 등급은 거의 변동이 없다.</p>  
<p>헌터들의 능력치는 헌터로서의 능력을 각성할 때 전부 결정되는 것이다.</p>  
<p>하지만 재각성 헌터들은 다르다.</p>  
<p>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C급이 A급으로, B급이 S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.</p>  
<p>우진철은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'성진우... 그가 재각성을 통해 S급, 아니 그 이상의 헌터로 거듭났다면 거기 있었다는 괴물들을 혼자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.'</p>  
<p>특히 거대 신상은 눈빛만으로 C급 헌터들을 녹여 버렸다고 했다.</p>  
<p>그런 괴물을 무의식 상태에서 죽일 수 있는 자라면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?</p>  
<p>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해 이번 일을 극비에 붙이고 모든 관계자들의 입을 철저히 단속했다.</p>  
<p>성진우에게 병원 일인실을 제공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.</p>  
<p>우진철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.</p>  
<p>'어쩌면 대한민국에도 국가 권력급의 헌터가...'</p>  
<p>세계에서 국가 권력급이라 불리는 헌터는 다 합쳐 봐야 열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.</p>  
<p>하나하나가 모두 핵전력을 능가한다는 국가 권력급 헌터를 한국에서도 보유할 수만 있다면!</p>  
<p>다행히 재각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던가?</p>  
<p>우진철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.</p>  
<p>"가져 와."</p>  
<p>그러자 부하 직원이 한쪽 구석의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왔다.</p>  
<p>"저건..."</p>  
<p>진우가 묻기 전에 우진철이 먼저 설명했다.</p>  
<p>"마력 측정기입니다."</p>  
<p>그는 이 마력 측정기가 소형화되어 있지만, 성능은 협회에 비치된 정식마력 측정기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다는 말도 덧붙였다.</p>  
<p>"여기 마정석에 잠시 손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."</p>  
<p>원판 위에는 주먹만 한 마정석이 박혀 있었다.</p>  
<p>블랙홀처럼 빠져들 것 같은 흑색의 마정석!</p>  
<p>A급 이상의 마수에게만 나오고 개당 가격이 10억을 호가한다는 최고급 마정석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말없이 마정석을 보고 있자, 우진철이 비장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부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만약 꿈에도 그리던 재각성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.</p>  
<p>그걸 공짜로 알아봐 주겠다는데 어째서 마다하랴.</p>  
<p>진우는 마정석 위에 손을 올렸고, 곧 마정석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우진철과 부하 직원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.</p>  
<p>슈우우우-</p>  
<p>이내 마정석을 감싸고 있던 빛이 사라졌다.</p>  
<p>우진철은 급히 선글라스를 벗고 수치를 확인했다.</p>  
<p>곧 우진철의 동공에 지진이 일었다.</p>  
<p>"이럴 수가!"</p>  
<p>숫자를 다시 봐도 변하는 건 없었다.</p>  
<p>'어떻게...'</p>  
<p>어떻게 헌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인간의 마력 수치가 10밖에 안 되는가?</p>  
<p>가장 낮은 랭크인 E급 헌터들의 평균치가 70~100 사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성진우는 일반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.</p>  
<p>"재각성입니까? 혹시 재각성이라면 랭크는 어느 정도쯤인가요?"</p>  
<p>진우는 손에 땀을 쥐었다.</p>  
<p>감시과 직원 두 사람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걸 봐선 결과가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었다.</p>  
<p>우진철은 진우의 기존 데이터와 현재 측정 수치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첫 측정 결과는 12. 4년 후인 지금은 10. 비록 2 줄어들긴 했지만 오차 범위 이내다.'</p>  
<p>마력 측정기의 이상이 아니었다.</p>  
<p>성진우의 마력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약했던 것이었다.</p>  
<p>여태껏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다.</p>  
<p>이 이상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우진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.</p>  
<p>"가지."</p>  
<p>"네."</p>  
<p>우진철과 부하 직원은 빠르게 짐을 챙겼다.</p>  
<p>"저기, 뭐라고 말씀들을 좀..."</p>  
<p>진우가 묻자 우진철이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혹시 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거든 연락 주십시오."</p>  
<p>두 사람은 뭐가 그리 바쁜지 짐을 챙기기가 무섭게 병실을 나갔다.</p>  
<p>꽉 찬 것 같던 병실이 이내 한산해졌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가 뒷목을 긁적였다.</p>  
<p>'역시 헛물이었나.'</p>  
<p>따지고 보면 몸이 상쾌하다는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점도 없었다.</p>  
<p>그리고 만약 재각성을 했다고 해도 혼자서 놈들을 전부 상대하기는 무리였을 거다.</p>  
<p>'최종병기라 불리는 최종인 헌터나 S급 위의 S급이라 불리는 고건희 헌터 정도면 놈들과 상대가 될까?'</p>  
<p>실제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으니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.</p>  
<p>S급 헌터들의 정보는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.</p>  
<p>그야말로 하늘 위의 구름 같은 존재들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올리던 찰나였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무심코 위를 바라봤더니, 허공에 글자가 떠 잇었다.</p>  
<p>[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.]</p>  
<p>\*\*\*</p>  
<p>'...?'</p>  
<p>다시 눈을 감았다 떠 보았다.</p>  
<p>[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.]</p>  
<p>글자는 토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떠 있었다.</p>  
<p>고개를 세게 흔들어보고, 눈을 비벼보기도 했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한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아래로 떨어트렸다.</p>  
<p>'환청을 들은 게 불과 얼마 전 일인데, 이제는 헛것까지...'</p>  
<p>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것일까?</p>  
<p>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[PTSD]라는 것이 있다.</p>  
<p>큰 사고나 끔찍한 경험을 겪은 이들이 보이는 이상증세를 일컫는 단어다.</p>  
<p>얼마 전 동료 대다수를 잃었고 본인도 죽기 직전까지 갔었으니, 그 여파로 환청이 들리고 헛것이 보여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.</p>  
<p>'하지만...'</p>  
<p>그렇게 단순히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좀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자신의 다리로 이동했다.</p>  
<p>석상의 방패에 잘려 나갔던 다리가 지금은 온전하게 붙어 있었다.</p>  
<p>이중 던전에 지하 신전,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와 말끔히 치료된 다리, 그리고 눈앞의 메시지까지.</p>  
<p>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.</p>  
<p>'어쩌면...'</p>  
<p>그 일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,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지끈거리던 머리가 약간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동요가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지니, 문득 메시지의 내용이 궁금해졌다.</p>  
<p>메시지 안에 여러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</p>  
<p>진우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글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.</p>  
<p>손은 글자를 통과해 지나갔다.</p>  
<p>'터치식이 아닌가?'</p>  
<p>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모양이었다.</p>  
<p>터치 외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.</p>  
<p>메시지를 확인하려면 어떡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, 문득 의식을 잃기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.</p>  
<p>"그랬었지."</p>  
<p>당시 정체불명의 목소리와의 의사소통은 모두 대화로만 이루어졌었다.</p>  
<p>'그때처럼 머릿속에 말을 떠올리거나 입으로 직접 말하면 되려나?'</p>  
<p>그렇게 결론 지은 진우는 그럴듯한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읊어 보기 시작했다.</p>  
<p>"확인."</p>  
<p>"메시지."</p>  
<p>"메시지 확인."</p>  
<p>"메시지 체크."</p>  
<p>"본다."</p>  
<p>"보겠다."</p>  
<p>"보자."</p>  
<p>"보여 줘!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"...대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건데?"</p>  
<p>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, 반쯤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교복 차림의 여동생이 시야에 들어왔다.</p>  
<p>"음..."</p>  
<p>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.</p>  
<p>천장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오빠.</p>  
<p>이건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